



## 建設部 人事이동 주택국장 등 12명 전보

건설부는 지난 6일 주택국장을 비롯한 국장급 12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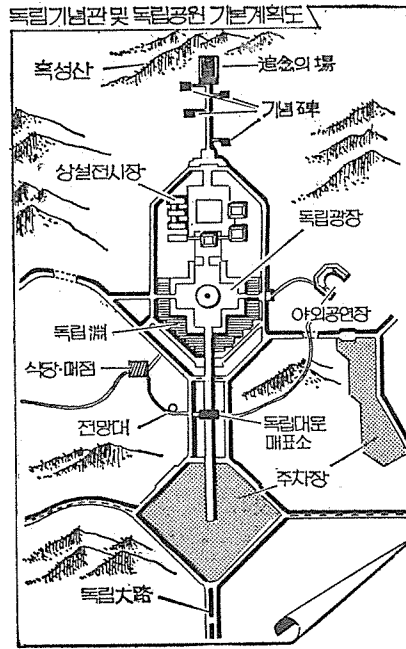
- ▲崔炳勳주택국장
- ▲李載明도시국장
- ▲盧元泰도로국장
- ▲朴圭悅건설진흥국장
- ▲朴勝伯해의건설국장
- ▲金庚烈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 ▲金世鍾이리지방국토관리청장
- ▲朴景煥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 ▲金永哲기술개발관
- ▲본부대기 / 宋漢燮 · 李和永 · 朴時夏

## 獨立기념관 起工式 가져 86年 8 月까지 완공키로

抗日光復투쟁사를 종합전시할 독립기념관이 光復節38주년 기념일인 지난달 15일 忠南천원군목천면 건립현장에서 기공되었다.

작년 8월말 우리 민족의 자주-자립의지를 다짐하고 그 역량을 내외에 선양하기 위한 독립기념관 건립준비위원회가 구성된 뒤 전국을 휩쓸었던 국민성금운동이 결실을 맺어 드디어 이날 건립의 첫 삽질을 하게된 것이다.

독립기념관 건립추진 위원회 (위원장 安椿生)는 忠南天原군 木川면 南化리 黑城山 중심계곡에서 지난달 15일 오전 10시 30분 민족의 염원이 담긴 기공식 행사를 갖는다고 발표했다.



건립추진위원회는 이날 『그동안 해외동포를 비롯한 전국민이 참여하여 모금한 3백70억원의 성금을 바탕으로 부지매입과 기초설계를 마쳤다』면서 3백96만평방m의 부지에 독립광장, 전시관 등의 기초시설과 연구실, 휴식실 등 지원시설, 주차장 등 기반 시설 및 追念의場 등 주요시설을 갖춘 독립기념관을 오는 86년 8월까지 완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독립기념관에는 민족의 항일 독립을 기념하는 조각과 기념물을 전시하는 옥외전시장 외에 10개의 실내 전시관이 3만3천2백80m<sup>2</sup>의 대지에 건립되는데, 제1관 총관은 전통문화관과 주요 國難 극복관으로 구성된다.

또 제2관은 민족근대문화 및 근대 민족관, 3관은 日帝침략관, 4관은 義兵 및 구국계몽관, 5관은 3·1운동관이 된다.

제6관은 독립군 및 의열투쟁관, 7관은 사회학생 문화운동관, 8관은 재외동포관, 9관은 임시정부 및 광복군관, 10관은 특별기획 전시관으로 만들어 독립기념관을 민족주체성에 입각한 국력배양과 국민교육의 도장으로 삼는 한편, 앞으로 한국민족에 대한 어떠한 침략도 단호히 배제한다는 민족의 강력한 의지를 담게된다.

흑성산 정상을 정점으로 並川에 이

르는 중심축의 1.8km에 건립될 독립기념관의 기본축 한가운데 3만m<sup>2</sup>의 부지에 조성되는 독립광장에는 연못 분수 폭포와, 민족자존과 발전의지를 상징하는 상징조형물도 건립되며 추진위원회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위락시설도 건설, 독립기념관을 민족의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도 갖고 있다.

한편 정부는 독립기념관 공사비 5백억원 중 이미 국민성금으로 모금한 3백70억원 외에 필요한 1백30억원은 앞으로 경제인들의 참여로 충당할 예정이다.

또 독립기념관 기공식 행사와 관련, 충남도는 전야제와 농악-민속놀이 등으로 구성된 다채로운 경축행사도 벌였다.

## 大田을 서울規模로 개발 91년까지 成長거점 도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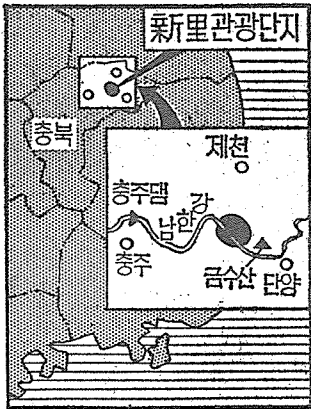
설악산 오대산 속리산 지리산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관광권이 형성되고 丹陽八景으로 유명한 忠州대 주변에는 新里종합 관광위락도시가 새로 만들어진다. 또 1차 성장거점 도시인 大田이 집중적으로 개발돼 91년까지는 지금의 서울규모로 커져 국토의 중심 기능을 맡게 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忠武 三川浦 앞바다에는 수산자원 보전을 위한 청정해역이 설정되고 黑山島를 중심한 舍南 6개 도서지역에는 대규모 어업 전진기지가 건설된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長期道別 개발계획을 국토건설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오는 91년까지를 개발목표로 하고 있는 이 道別계획은 중앙정부가 맡아 하게 될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82~91년)의 하부계획으로 民資를 포함, 모두 32조 8천 2백억원을 투자, 各道가 개발주체가 돼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道別계획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별도의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京畿와 자유항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濟州道 및 장기 도시계획에 의해 개발되고 있는 서울 釜山



大邱 仁川 등 4개 특별 및 직할시는 제외했다. 각도별 주요개발계획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투자계획, 단위 : 10억원>

▲江原(2,634) = 설악 春川 原州 江陵 東海 등 5대관광권개발, 林間공동목장을 중심한 축산개발.

▲忠北(1,908) = 丹陽八景과 忠州댐 중간에 新里종합위락관광지구건설, 설악산 등 江原관광권과 지리산 등 남부관광권을 속리산에 연결하는 관광권개발.

▲忠南(5,976) = 天安독립기념관과 百濟고도 公州 扶餘를 연결하는 관광 및 전원생활권 조성, 大田을 서울규모의 국토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한 중점개발.

▲全北(4,060) = 金堤평야를 중심한 복합영농단지개발, 全州 裡里 群山을 연결하는 공업지역개발.

▲全南(6,768) = 木浦를 중심한 9개도서지역개발, 黑山島 등 6개도서 지역에 대규모 어업전진기지건설, 1백98평방km의 간척사업.

▲慶北(4,868) = 浦項중심 임해공업단지, 구미중심 내륙전자 공업단지개발, 安東중심 교육 및 관광권개발.

▲慶南(6,606) = 한려수도권 晋州 居昌중심 서부내륙권 釜谷 鎭海등 중부권 通度寺 表忠寺 등 동부권등 4개 관광권개발, 忠武 및 三千浦 앞바다 청정해역개발.

### 대피시설 건축규정 미흡

세균·핵전쟁시 쓸모없어

각종 건축물의 긴급대피 시설로 지하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분이 걸치레에 불과하고 실제 대피시설로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대피시설은 건축법과 그 시행령에서 설치를 의무화, 건축물규모에 따른 면적 및 기초구조를 규정 해놓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에 따른 대피시설로는 사실상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일시적인 대피수단 밖에 되지 못하고 현대적인 핵·세균전에는 전혀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駐韓 스위스대사관과 大進무역이 공동주최한 방공호 시설 장비에 관한 세미나에서 밝혀졌다. 이날 세미나에 참가한 스위스 방공호 설비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의 대피시설의 지하벽면이 건축법에서 두께20cm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제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50cm 이상이 되어야하고 방공호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스위스의 경우 방공호에는 화재 및 폭발충격을 막을 수 있는 벽과 출입문, 그리고 핵·화학무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공기여과기 등이 갖추어져야 전국민의 85% 이상이 비상시 1개월 이상을 지하방공호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방공호 설치는 1인당 1~1.5m<sup>2</sup>가 최소면적으로 1인당 5백~6백달러(40만~5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 고 밝혔다.

이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지하대피시설을 실제적으로 활용키 위해서는 핵·세균전 등 현대전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지적했다.

### 特定地域추가고시

서울·인천·경기·충남일부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투기 조짐이 일고있는 서울 江南 및 江東區 16개동을 비롯, 仁川市, 京畿 忠南지역등 총 2백53개 里 洞을 9월 7일 자로 특정지역으로 추가 고시했다. 이로써 지난 2월 1차 특정지역 고시 이후 특정지역으로 묶인 곳은 전국 3백15개 里 洞과 9개 아파트지역으로

늘어났다.

특정지역이 고시되면 해당 지역과 부동산에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를 부과할 때 내무부시가표준액 대신 국세청이 실거래가격을 토대로 정한 기준시가를 적용, 이에따라 세금부담이 훨씬 무거워진다.

국세청은 최근 私債시장의 위축으로 浮動자금이 부동산 투기에 몰리고 있어 이미 고시된 특정지역 인근의 부동산값이 크게 오른데다 大田을 국토중심지로 개발한다는 당국의 방침 등 각종 개발계획에 편승, 부동산투기가 다시 일고있어 특정지역을 추가 고시했다고 밝혔다.

추가고시지역은 서울16개동 仁川 2개동 富川 5개동 安養 3개동 水原 10개동 城南 5개동 이외에 京畿道 始興군(21개리) 安城郡(13) 華城(23) 龍仁(28) 利川(39) 廣州(12) 平澤(29) 南陽州郡(7) 일부와 忠南大田市 26개동 大德郡 4개리 등이다.

국세청은 또 투기지역 및 일반지역을 막론하고 5천만원 이상의 토지대량매입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일반지역의 거래동향을 줄곧 파악, 투기발생 지역은 즉각 특정지역으로 고시할 방침이다.

이날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서울 江南 江東區 일부지역은 9월들어 토지아파트 단독주택 등의 거래가 활발해진 가운데 투기성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특히 江南 九 細谷동의 논도 현재 평당 가격이 10만원으로 3월초보다 25%가 올랐고 內谷洞도 50만원으로 뛰었다. 江東 九 鳳納동의 주택용 대지는 3월초 평당 1백만원에서 25만원이나 상승했고 이밖에도 文井洞·巨余洞등의 주택 상가용 토지값이 12~20%씩 올랐다.

仁川市 九月동의 경우 평당 땅 값은 3월초보다 42%(15만원)가 오른 50만원, 安養市 坪村동은 62%가 오른 13만원 始興군 軍浦읍 山本리를 비롯, 富川市 驛谷동 水原市 仁溪동 利川군 夫鉢면 牙美리 등이 각각 최근 6개월동안 50%가 올랐다.

국세청은 이들 京畿道 지역은 큰더 스키장 주말목장 스포츠타운 등 레저

시설 LNG 수입기지 건설 등과 관련, 땅값이 치솟고 있으며 산과 논 밭 등에 대한 대규모 투기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8월24일 정부가 大田지역을 인구 1백20만명의 대규모 도시로 개발한다고 발표하자 시내 신흥 개발 지역은 물론 시내 외곽의 토지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大田지역의 땅값 급등은 최근 시로 편입된 곳이 많은데 伏龍동(임야)은 9월초 평당 가격이 3만원으로 3월초보다 무려 76%가 급등했고 三川洞(대지) 月坪洞(대지) 弓洞(대지) 魚隱洞(임야) 등은 66%, 屯山洞은 42%가 올랐다.

한편 정부는 5일 오후 경제기획원에서 부동산투기 대책실무위원회(위원장 金興起기획원차관)를 열고 투기 지역에 대한 과세강화와 함께 자산재평가법시행령을 연내개정, 토지를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요상가 및 빌딩임대료를 내년부터 정부가 적정선을 설정, 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토지거래신고제의 조기실시, 내년 6월까지 개인별 토지보유실태 전산화를 추진키로 했다.

### 남창동 1-5 일대 재개발

새로나 백화점 뒤편 낡은건물과 공지로 남아있는 中区南倉 1의 5 등 일대 2천 8백39m<sup>2</sup>(약 8백59평)에 오는 10월부터 재개발사업이 시작돼 지하 5층, 지상10층의 연면적 2만 5백 42m<sup>2</sup>(약 6천 2백13평) 규모의 현대식 빌딩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 지역에 대한 재개발사업자로 三益建設(대표 李昌洙)을 지정, 오는 10월부터 이 지역에 대한 재개발사업을 벌이도록 했다.

이 지역은 서울의 중심가로 낡은상가 및 시장건물 공터 등이 남아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던 곳으로 지난 78년12월 재개발사업 지구로 지정된 후 토지형태가 불규칙하고 부정형으로 되어 있어 토지이용도가 낮아 재개발사업이 지연돼 오던 곳이다.

三益建設은 토지 및 건물 보상비를 포함, 도합 1백18억원을 들여 오는85

년초까지 지하5층 지상10층 규모의 업무 및 판매용 빌딩을 건립, 지하는 의류도매시장으로, 지상건물은 업

무용으로 쓰기로 했다.

이 빌딩에는 동시에 1백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주차장이 설치된다.

□ 자료 / 기증

## 新刊 및 資料

### ■ 建設研究所資料 / 國立建設研究所

건설연구소가 건축기술지도서로 펴내는 자료로서 433호 및 434호로 금년 8월발간.

433호에는 組積造非耐力壁構造設計基準(案)과 組積構造基準比較研究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434호에는 建築尺度調整의 實用化研究가 MC의 목적, 성격, 원칙, 방법, 실예 등 순으로 소개되었다.

### ■ 造形論

朴圭鉉·金正在 編譯

朴圭鉉교수(대구대학교)와 金正在교수(중앙대학교)가 編譯한 本書는 스웨덴의 건축 이론가 Sven Hesselgren 이 지은 "Man's Perception of Man-made Environment"의 編譯書이다.

모든 산업디자인의 기초역할을 하는 조형이론과 디자인 이론을 바탕으로 디자인의 순수이론과 응용이론의 통합을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 책은 디자인과 인간환경의 〈 만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기초지각과 조형미, 인공환경의 표현, 공간과 도시 등 모두 5장으로 나누어짐.

\* 技文堂발행 · 값 5,000원

### ■ 建築學概論

제임스 C. 스나이더·안토니 J. 캐더니즈 編 / 尹一柱·趙昌翰 외 8명 共譯

이 책은 건조환경(建造環境·Built Environmental)의 입문을 위한 개설서이다. 건축은 일차적으로 세 가지 규모에서 건조환경과 관련되는데 즉,

건물보다 작은 것, 건물자체, 건물보다 큰것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건축과 도시계획의 분야에 초보적인 지식을 갖기 원하는 사람들 및 초급학생들에게 건조환경의 여러 국면을 소개하기 위해 쓰여졌다.

모두 5편으로 구성된 이 책은 제 1편 기원·이론·형태, 제 2편 건축을 위한 배경분야, 제 3편 건축설계, 제 4편 건축의 과학과 기술, 제 5편 연구와 평가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초급학년뿐 아니라 대학원을 포함한 모든 학생, 그리고 전문가들이 읽어서 얻을 바가 큰 책이라고 역자를 대표하여 윤 일주교수는 밝히고 있다.  
\* 技文堂발행 · 값 8,000원

### ■ 建築의 理解

윌리엄 W. 카우델

윌리엄 M. 페너

폴 케논 共著 朴萬植 譯

이 책은 건축이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 지는가를 초보적인 단계에서부터 다루고 있다. 따라서 시대적으로 위대한 건물이나 특정 건물에 대한 평가 혹은 유명 건축가의 철학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하는 건축물을 독자들이 알기 쉽게 집필되어 있다.

건축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으로부터 건축주, 건축가를 가족으로 둔 사람들, 건축위원회 위원, 건물 이용자 등, 일반 대중과도 가까워 질 수 있는 건축 입문서의인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 技文堂발행 · 값 6,500원